OPINION

2025년 8월 13일 수요일

독자권익위원 칼럼

책과 함께 무더위를

박봉순
독자권익위원
동신대학교 지역협력본부장

지구가 난리다. 폭염과 폭우가 연일 반복되며 재난 문자가 수십 차례 울려 대니 몸과 마음이 지쳐간다. 하루하루 무탈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런 시기에 문득 옛 선인들은 여름을 어떻게 지냈을까 궁금해진다. 당시에는 에어컨도 없고, 간단한 부채 하나 구하기도 어려웠을 터다. 선인들은 무더위를 피해 시원한 물가나 정자에서 책과 함께 보내며 여름을 견뎠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과 미디어를 통해 온갖 정보를 즉각 얻는다. 하지만 정보가 지나치게 압축되고 단편적으로 소비되면서 전체 맥락을 놓치고, 왜곡된 지식이 퍼지기도 한다. 옛말에 '귀한 자식은 여행을 보내라'고 했다.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배우는 여행이 인생의 밑거름이 되고 귀한 양분이 되기 때문이다. 여행이 어려울 때는 책을 가까이하며 직접 경험하지 못한 지혜와 세상의 이치를 배웠다. '책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전해져 온 진리다.

현대의 여름은 피서와 휴식의 계절이지만, 정신을 위한 '냉수욕' 또한 절실한 시대다. 지식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길이다. 이기심이 능력으로 포장되고 소음이 일상이 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삶의 중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은 깊은 사고, 곧 '고전 독서'에 있다. 빠르게 소비되는 정보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며, 어떤 태도를 남기고 있는가?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듣고 오래 생각하는 능력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귀한 자산이다.

한국의 전통 지성은 책을 가까이하며 인간의 수양과 사회적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특히 여름은 단순한 무더위 시기가 아니라 정신을 단련하고 내면을 정제하는 계절이었다. 옛 선비들은 책을 통해 자신들의 품격을 드러냈고, 무더운 여름을 내면의 수양과 함께 견뎠다.

조선의 여름은 달랐다. 선비들에게 여름은 수양과 공부, 사색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였다. 퇴계 이황은 무더운 여름에도 '논어'를 소리 내어 읽었고, 다산 정약용은 강진의 뜨거운 여름 속에서 '경세유표' 같은 대작을 완성했다.

율곡 이이는 열여섯 살 여름, '주역'을 탐구하며 존재와 질서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의 통찰은 조선의 교육 철학과 정치 구조의 근간이 됐다. 그들에게 여름은 피할 계절이 아닌, 자신을 단련하고 세상을 관통하는 사유의 시간이었다. 고요히 책장을 넘기며 한 구절에 몰입하는 모습은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 '삶의 태도'였다.

오늘날 독서는 '정보 습득'이나 '자기계발'로 오해받는다. 하지만 진정한 독서, 특히 고전 독서는 존재를 단련하는 내면의 실천이다. 논어의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구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묻는다. '나는 오늘도 나를 익히고 있는가?', '나는 지식을 위해 배우는가, 아니면 인간이 되기 위해 배우는가?' 고전의 문장은 느리고 깊으며 고요하지만 날카로운 울림을 지녔다. 그 울림은 인공지능도 알고리즘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만의 자산이다.

독서를 통해 미래를 빚는 한국인, 속도에 중독된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치지만 이해는 얕고, 연결은 많지만 공감은 희미하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춤과 사고, 즉 정신의 회복력이다. 그 출발점이 바로 깊이 있는 독서이며, 사고의 근육을 다시 기르는 일이다. 독서는 개인의 품격을 빚고 세대 간 지적 공기를 맑게 하며 국가의 문화적 깊이와 미래 역량을 결정짓는다. 책을 읽는 인간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사회 기반이다.

책은 쉼표이자 출발선이다. 여름은 쉰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멈춤이 아니라 내면의 전환이어야 한다. 책을 펼친다는 것은 외부 자극을 끊고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정신의 냉수욕이다. 독서는 정신의 평온을 회복하는 길이며, 정보 소비자에서 실천자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정신적 근육이 말라가는 중이다. 경제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의 허기는 깊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정신에는 지혜와 절제,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미학이 살아 있다. 책은 얼음물보다 더 깊은 청량감을 준다. 책은 쉼이며 전진이고, 사고이자 구조이며, 무너진 내면을 다시 빚는 정신의 공방이다.

독서를 하자. 이 여름, 나를 다시 빚고 무더위를 슬기롭게 넘기기 위해, 그것이 현재의 세상을 품격 있게 살아가고 미래를 정신적 공허함 없이 맞이하는 가장 단단하고 지혜로운 방법일 것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기고

쉼이 필요한 계절, 몸과 마음은 농촌으로 간다

정성욱
목포농협 용해지점장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무더위가 전국을 달구면서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볼까?'하는 기대와 설렘이 곳곳에서 피어나고 있다. 이미 연초부터 여름휴가를 계획하는 이들도 많고, 한두 달 전부터 일정을 준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사계절 내내 휴가를 즐기는 시대가 되었지만, 고된 일상 속에서 짐을 내려놓고 재충전하는 시간으로는 여전히 여름휴가가 가장 상징적인 시즌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직장인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년 여름휴가 계획 설문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1.6%가 '여름휴가를 떠날 예정이다'고 답했다. 이 중 83.5%는 국내여행, 16.5%는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여행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고물가와 항공료 부담, 국제 정세 불안 등 복합적인 요인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짧지만 확실한 휴식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이 고스란히 반영된 셈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다시 주목받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2018년 소비 트렌드로 주목받았던 이 단어는 거창한 이벤트보다는 일상 속에서 작고 분명한 만족과 감동을 추구하는 태도를 의미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과 2024년 국가적 혼란을 겪으며, 많은 이들이 '지금 살아 숨 쉬는 오늘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 이제 소확행은 단순한 유행어를 넘어, 삶의 철학이자 사회적 가치로 자리 잡았다.

이런 정서적 흐름에 힘입어 최근 각광받는 여행지가 바로 농촌이다.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불과 3~4대만 거슬러 올라가도 농업인의 후손이다. 다시 말해, 우리 모두의 뿌리는 농촌에 닿아 있고, '고향'이라는 말은 단순한 장소 이상의 깊은 정서적 의미를 담고 있다.

농촌과 도시가 이어지고, 우리 모두의 고향인 농촌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농촌경제 회복은 물론, 우리 사회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농촌은 더 이상 단순히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에 머물지 않는다.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세대에게 농촌은 오히려 이국적이고 신선한 감성을 자극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다가온다.

아이들은 논에서 벼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보고, 흙길을 걷고, 수박과 참외를 수확하며 생생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추억이 된다. 어른에게는 어린 시절의 고향을 떠올리게 하고, 별빛 가득한 밤하늘 아래에서는 마음의 평화와 위안을 얻을 수 있다.

낯선 방문객에게도 작은 정을 나누는 따스한 마음은, 도시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사람의 온기'로 다가온다.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여행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ESG 기반 국내 여행 만족도 보고서(2025년 3월)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다수가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여행 방식에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농촌 여행은 단순한 휴식을 넘어, 지역과 교감하고 윤리적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가치 중심의 여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자영업 폐업 신고자 수가 100만명을 넘었다는 통계청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준다. 지역경제의 숨통을 틔우는 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여행객으로서 농촌을 찾는 것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마음을 나누는 연대의 시작이다.

농촌여행은 농민에게는 농산물 소비를 통한 희망의 싹이 되고, 지역 자영업자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가능성을 열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휴가, 그저 떠나는 여행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응원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싶다. 농촌경제와 내수를 살리는 뜻깊은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감동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올 여름, 한 폭의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농촌 풍경 속에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삶의 본질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휴식은 목적지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그 여정이 농촌에서 시작된다면 우리는 따뜻한 행복을 분명히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재수첩

프로선수다운 모습을

송하종
문화체육부 기자

프로스포츠.

해당 종목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경쟁하는 스포츠다. 아마추어와 달리 경기를 하며 돈을 번다. 한마디로 '업'이다.

단순한 놀이가 아닌 만큼 선수들은 프로의식을 갖춰야 한다. 특히 프로스포츠는 팀 단위로 움직인다. 개인보단 팀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최근 광주FC의 한 선수가 개인 욕심에 사로잡혀 팀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구단과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이적 발표를 한 것. 덕분에 팀은 대체 자원도 구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다. 심지어 부상을 핑계로 훈련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태업 논란까지 일으켰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사니다.

그는 지난 3일 이란 에스테그랄 테헤란 구단과 1년 6개월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SNS를 통해 전했다. 광주 구단은 해당 게시물을 통해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당황을 금치 못했다.

아사니는 광주의 핵심 자원이다. 올 시즌 팀 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ACLE 무대에서도 맹활약을 펼치며 팀의 8강 진출 새역사를 이끌기도 했다.

지난 2023시즌 광주에 합류한 아사니의 계약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종료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다.

앞서 광주는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아사니의 이적을 추진했으나, 그의 소극적 태도로 불발됐다. 아사니는 추가 선수 등록 기간인 7월 24일까지 이적하지 않으면 팀에 잔류하겠다는 약속을 한 상황이었다.

이에 광주는 올해까지 동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아사니의 이적료를 포기하는 대신 코리아컵과 K리그1에 집중하겠다는 그림이었다.

하지만 대뜸 아사니가 기존 오퍼보다 낮은 이적료에 당장 에스테그랄로 떠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물론 규정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보스만룰(계약만료 6개월 미만 선수는 자유 협상이 가능한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구단과 상의 없이 이적을 확정한 점이다.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이 마감돼 광주는 대체 자원 영입이 불가능하다. 더욱이 아사니는 종아리 통증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으면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는 이정효 감독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의도적인 '태업'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내칠 수도 없다. 에스테그랄이 제시한 이적료는 광주의 요구액에 미치지 못한다. 또 아사니를 배제하기에도 광주의 스쿼드가 두껍지 않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딜레마에 빠져있는 상황. 한 선수의 이기심에 팀은 4경기 연속 무승에 빠졌다.

안일한 생각과 무책임한 태도는 본인뿐만 아니라 팀과 단체 모두에 피해를 끼친다. 프로의식이 없다면 프로선수라 불릴 자격이 없다. 현재 자신이 속한 곳이 어디인지 돌아보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야 할 때다.

사설

광주 북구 '침수피해' 복구 조속히 이뤄져야

올 여름 역대급 극한호우로 잇단 침수피해를 당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광주 북구가 피해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달 17~19일 이어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북구의 공식적인 피해 규모는 2322건에 172억원이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 122억원을 크게 넘어선 수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침수피해 현황과 복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 63억4400만원(국비 50억7500만원, 시비 5억750만원, 구비 7억6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편성했고 이중 15억7000만원의 국비를 우선 배정했다. 또 국세·지방세 감면 및 납부 유예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경감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도 하기로 했다.

북구는 이 재난지원금을 주택과 농림, 상가 등에서 피해가 접수된 3207건을 지원키로 했다.

이미 확보된 국비로 이달말까지 피해 사유시설 지원에 13억6000만원, 공공시설 복구에 2억1000만원을 투입키로 했다.

나머지 확보되지 않은 50억원의 재난지원금은 추경 등을 통해 확보, 추석 전인 다음달 30일까지 지급해 침수피해 지역 상권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소상공인 1277명에게 총 38억3100만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주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먼저 빗물이 상가 출입문 등을 통해 건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0억2000만원을 활용해 침수피해가 확정된 용봉로, 신안교 주변, 운암시장, 공구의 거리 등 상습침수지역 내 상가 400여곳에 대해 상가당 최대 300만원을 들여 차수벽을 설치하기로 했다.

357억원을 투입해 도로·교량, 하천·하수도, 공원녹지 등 134건의 피해 시설을 복구하는 한편 풍수해보험 가입 상점의 자기부담금을 기존 45%에서 31.5%로 낮춰 650곳 상점이 평균 1만5000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200세대에 도배·장판 교체 등을 돕는 '행복둥지 사랑의 집수리' 사업도 14일까지 완료키로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가 지원이 가능해진 광주 북구의 피해 복구 사업이 신속히 추진돼 주민들의 일상회복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반복되는 '폭파 허위신고' 강력히 처벌해야

광주·전남에 다중 이용시설에 대한 폭발물 설치 예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들 모두 허위로 확인돼 그나마 다행이다.

실제로 11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서구 롯데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신고가 서울 마포경찰서 등을 거쳐 광주경찰청에 접수됐다. 경찰은 동구 롯데백화점과 서구 신세계백화점에 각각 특공대와 기동수사대를 투입해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폭발물 설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백화점은 2시간여동안 출입통제됐고 낮 12시 40분이 돼서야 정상영업에 들어갔다.

다중이용 시설물 폭파 협박은 올 들어 지역에서만 3번째다.

지난달 4일 광주여자대학교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겠다'는 협박으로 학생과 교직원 전원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소방 인력 등이 출동했지만 허위로 드러났고 지난 2월에도 담양의 한 호텔에 폭파 협박 전화가 걸려와 수색반이 투입됐으나 역시 폭발물은 없었다.

문제는 이같은 폭파협박이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지난 1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허위신고가 접수돼 공연을 보러 온 시민 수천명이 대피했고 지난 5일에는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위협 글을 올린 중학생이 다음 날 검거되기도 했다.

특히 단순 장난전화 등 다른 허위신고와 달리 만에 하나 사실일 경우 큰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경찰은 특공대 등을 매번 실전처럼 출동시키는 등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정치적 갈등과 사회 불안을 꼽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이를 국가적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고 있는것과 익명을 이용해 쉽게 할 수 있다는 점도 한몫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정부는 올해부터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실제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징역 5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하는 공중 협박죄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이 때문에 법률 개정 등을 통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정치부	370-7010	논설실	370-7060
경제부	370-702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사회교육부	370-7030	임원실	370-7000
지역사회부	370-7040	총무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업국	370-7090
편집부	370-7082	광고국	370-7070
사진부	370-705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